

서로 다른 매체의 충돌... 여백과 사유로 이끌 것

베르사유의 선택, 왜 이우환인가

2008년 베르사유궁은 세계적 팝아티스트 제프 쿤스(미국)를 초대해 전시를 열었다. 바로크 시대의 역사적 유물인 이곳을 현재진행형의 공간으로 되살리는 프로젝트다. 쿤스의 뒤를 이어 무라카미 다카시(일본), 베르나르브네(프랑스), 주세페 페노네(이탈리아) 등이 베르사유의 주인공이 됐다. 연간 1000만 명을 자랑하는 베르사유궁 정원 방문객의 40%가 전시 기간에 몰린다. 전시 기자회견엔 200명

이상의 내외신 기자가 찾아온다.

올해의 전시 작가로 이우환이 낙점됐다. 이에 대해 카트린느 페가르 베르사유궁 관장은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 정원을 설계한) 앙드레 르 노트르의 선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르 노트르가 우리를 미니멀리즘과 여백 개념으로 이끌었다"며 "이우환이 베르사유에서 우리를 조용하고 시적인 세계로 인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알프레드 파크망 전 품피두센터 국립현대미술관장은 "파리 주

드폼(1997~98), 뉴욕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2011)에서의 회고전 이후 열리는 이번 베르사유 전시는 이우환 예술세계의 또 하나의 전기를 이룰 것이며, 그는 동시대 미술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크망 전 관장은 이우환의 작품에 대해 "철학과 자연성, 만들어진 것과 만들어지지 않은 것, 두 개의 매체가 충돌하며 일으키는 효과가 이우환 조각의 핵심"이라며 "예술이 자동적이거나 개별적인 개체가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근영 기자

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2014. 6. 12

국제갤러리(주)